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송 요 셉

제 14 강의: 이방인과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홍색줄"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기도 ◀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창녀 라합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족들을 주 안으로 다 인도하고 구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창녀 라합의 가족처럼, 또 바울과 실라가 갖혔던 옥의 간수장의 가족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모든 가족들을 강권하여 구원 받게 하는 축복을 주님 오시기 전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와 소개 ◀

오늘은 여호수아 2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공부했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발견되면 죽는데, 창녀 라합이 숨겨줍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주는 대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라합은 세상과 타협해 사는 이방 나라 죄인들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이방의 죄인들 가운데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라합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망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구원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을 아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해도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14: 여호수아 2:18~24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네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 줄』을 매어 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비의 가족 모두를 네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네 집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한다면 그 때에 우리는 네가 우리로 맹세케 한 네 맹세에 대하여 무죄하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삼 일을 거기서 머물렀더니 그 쫓는 자들이 모든 길에서 그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더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민들마저도 우리로 인하여 힘이 빠졌나이다 하더라

밖으로 나돌지 말고 바로 믿고 주 안에 거하라 ◀

출애굽 때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음을 면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주홍색 실, 주홍색 줄이 나오는 것은 → 그리스도의 주홍빛 피』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두 정탐꾼이 "우리를 내려가게 한 "주홍줄"을 걸어놓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라합은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올 때쯤 걸겠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걸었습니다. 복음은, 들을 때 → 바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대개 "나중에 믿지요. 차차 믿지요."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온 가족을 집으로 모으라. 그러나 집 안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면 책임 못 진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으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라합이 복음을 듣는 즉시 바로 믿고 어떻게 그 안에 거했는지, 두 사람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여호수아 6 장 17 절 이하에 자세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은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은,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심판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

17 이 성읍 즉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 받을 것이라 창녀 라합 즉 그녀와 그 집 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음이라 18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 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 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 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19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놋과 철 기명들은 주께 바쳐서 그것들을 주의 보고로 들여와야 하리라 하더라 20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21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라 22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창녀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23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24 그들이 불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으며 은과 금과 놋 기명과 철 기명만 주의 보고로 들였더라 25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비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코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라 26 여호수아가 그 때 백성에게 엄명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코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첫째 아들을 그가 문들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더라 27 이처럼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지더라

여호수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

여호수아는 예수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준 것처럼, 그 날에 "예수님의 칼날로 이방 나라들을 전부 멸하게 하고 단지 주를 믿는 사람들만 남기고 무차별로 다 죽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구약 안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하실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진짜 예수아, 예수님이 오실 때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19 장을 보겠습니다.

내 가족을 진노의 포도즙틀에 짓밟혀 새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라 ◀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98

12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13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14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16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19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포도즙틀에 포도를 넣고 막 밟으면 즙이 밑의 구멍으로 흘러나오지요. 무차별로 마구 밟아댑니다. 물론, 여기서 짓밟히는 것은 "참포도"가 아닌 "들포도"입니다. 단 포도가 아니라 신 물이 나는 들포도, 즉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입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상징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만 풀어내는 거지요. 요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믿을 게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상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그 집인데,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집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치수와 재료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 두 보석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흉배에 붙이는 열 두 보석인데, 그걸 전부 다 상징이라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다 속이는 거지요. "아마겟돈 전쟁"도 지금의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이랍니다. 포도즙틀에 짓밟히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때 수 많은 사람들이 작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장사합니까? 새 떼의 밥이 되는 거지요. 독수리, 매 같은 "새들의 밥이 된다"고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체들을 뜯어먹는 새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도 모르는 거지요. 구원 받지 못한 가족들이 그 날에 짓밟히지 않도록, 새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와 온 집안이 구원 받지 못한 최후의 때에 일어날 일들─보지도 듣지도 못한 예비된 복수 ◀

이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일"은 이사야 63 장 1 절부터 6 절 "복수의 날"에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죄인과 악인들, 이들을 복수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은혜시대"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은혜시대"가 끝나면 "복수"를 당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죽었는데 → 그걸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2 어찌하여 네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은가 3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4 내가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 주는 자가 없었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6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요한계시록 19 장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복수에 대한 예언"이지요. 63 장의 "악인들을 멸하는 일"은 64 장 1,2 절의 사건과 같이 일어납니다.

1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2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99

주님이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광경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뜻합니다. "하늘 문"은 여러 번 열렸지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도, 에녹이 올라갈 때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복수의 심판 때에도 또 열립니다. 그 때는 어린양처럼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진노의 심판주 앞에서 산은 불바다가 되는데, 산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들을 다 녹이십니다. 이런 일들, "마지막 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일"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 장은 말씀합니다.

9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16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면 사람들은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돈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가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잘 쓰지요. 그건 잠깐이고, 영원히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당하고 삽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참습니까? 그걸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 복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 것" 입니다. 즉,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포도즙들에 밟히고 산이 불에 녹아내리는 처참한 이 "복수"는 →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 입니다. 이처럼 그 복수는 신구약을 통털어서 나타납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이 이해가 안되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19 장을 모르면 고린도전서 2 장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 장 9 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신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4 장이지요. 나와 내 가족이 그 복수의 대상이 안되도록 성경 전체를 자세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당부와 권면 ◀

1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계심을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는 생각은 "주님의 생각" 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물보다는 낫지만, 인간의 생각만 하는 인간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럴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도 못 보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될 일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봤니 들었니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말씀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흰 옷을 입고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마귀를 만나셨군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만나야 하는 것" 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자기 생각,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로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아무리 배워도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럴 듯하다고 추측하는 정도만 알 뿐이지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지 못하면 못 보고 못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 전체를 자세히 공부할 때그렇게 됩니다.

3 내놓은 남의 자식이 되지 말고 친자식이 되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뭘 보고 압니까? 말하는 것 하나, 표정 하나만 봐도 압니다. 남의 자식은 모르지요.

100

하나님의 자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속이 어떤지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그거 참 좋은 말씀이다" 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지요. 그 말씀은 믿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Oh, today it's a good sermon, pastor!" 하고 맙니다. 그러고 말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고 부닥치면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거지요. 말씀은 감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에서 말씀으로 죽 인도해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성경을 17,8 년 까지는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마리오 목사님이 존 맥아더 목사님에게 17,8 년을 공부했습니다. 저와 똑 같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마리오 목사님이 멕시코로 내려갈 겁니다. 히스패닉 사람들은 찬양을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뭘 자꾸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줄을 모릅니다. 히스패닉 예배에 다섯명 정도가 성경 공부하러 나옵니다. 마리오 목사님은 교사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중에 이 분은 "목사와 교사" 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분이 거기가서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 분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고아원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아원을 짓도록 재물과 땅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지요. 말씀은 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사님처럼 되기를 비랍니다.

5 온 가족을 강권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밖에 나가서도 강권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 장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25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20 그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27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28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네 몸을 헤치지 말라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29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30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31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니라 32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33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 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34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창녀 라합이 믿을 때 자신과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은 "약속"이 아닙니까? 그 때, 그녀가 "아 그래요?" 그러고 말았습니까? 나가서 "살려면 다 들어오라!"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을 듣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까? 아니지요. 강권을 해서 들어올 때 되는 겁니다. 행동이 필요한 거지요. 그 날 간수가 음식을 차리고불러들여서 온 가족이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니면서 강권해서 집으로, 교회로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못 오면 종들을 집으로 초청하든지 해서 복음을듣도록 강권해야 하는 겁니다. 꺼꾸로, 마귀는 교회에 못 오도록 강권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못 민도록 얼마나 강권하는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 있습니까? 왜 여기에 히스패닉 교회가세워졌습니까? 교인들을 이런저런 말로 유혹해 다 데리고 나갔어도,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외쳐서불러들여 내 집을 채운 것 아닙니까? 나가야 채우지요. 나가서 강권해 불러오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강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아니지요. 말씀을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그랬는지모르지만, 분명히 본문에 나온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여기에 또전했습니다.

101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로 나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인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해『**유대인뿐만 아니라 → 모든 민족이** <mark>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 때 이미 열어주신 것</mark>」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본인은 구원 받았지만, 가족들은 한 사람도 구원 받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강권해야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강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때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 받은 것을 알면 구원 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 막 미치는 거지요. 미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나갔다가 대구에 있는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나서 전화통을 붙들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 분 아버지도 같이 울면서 영접했다는 겁니다. 저도 구원 받고 처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산호세 사는 큰 누님이 안 믿었습니다. 전화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며 울었습니다. 그냥 막 우니까 영문도 모르는 누님도 따라 울었지요. 그러다가 저도 무릎을 꿇고, 누님도 꿇고 전화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